

어린이 프로 다시 보게 돼

불교TV 28일부터 가을개편

『토요기행』 먹거리·교통정보와 함께 사찰소개
BTN초대석 각 종단 주요행사·교계소식 전달

불교TV(사장 정우성)는 28일 가을월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사찰·종단 소개, 교양, 어린이 포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신설과 기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확대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는 개편으로 불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기행 프로그램인 '토요기행 절로 가는 길'(토요일 오전 10시25분~오전11시15분), 이 프로그램은 시인 황정원씨의 진행으로 매주 2~3군데 사찰을 지경해 사찰의 역사는 물론 그 주변의 불거리와 먹거리, 교통편 등을 다채롭게 소개해 준다.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유치원을 탐방하는 '모여라 부처님나라'(월요일 오후4시40분~오후5시15분)은 어린이 포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가자 다른 색깔로 새끼 불자들을 포교하는 모습 등 화면에 담아 보여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막을 내린 '신나는 연꽃동산' 이후 6개월만에 부활된 유일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인 것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 새롭게 가세한 'BTN 초대석'(오전9시10분~오전

10시)은 각 종단의 주요행사 및 조계종 교구분사 소식 등 한주간에 일어난 교계 동정을 자세히 전달해 준다.

이밖에도 지나치기 쉬운 불교에 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불자들의 신생활에 도움을 줄 'BTN 신행문화 캠페인-참불자가 됩시다'(월요일~토요일 오전10시15분~오전10시25분)과 명사들의 가슴속에 각인돼 있는 감동적인 경구를 들려주는 '내 마음의 경구'(월요일~토요일 오전7시25분~오전7시30분) 등도 새롭게 선보인다.

주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거사와 보살 중심에서 직장·어린이·청소년 등으로 범위를 넓힌 TV 법회(월·수·금·일요일 오전9시10분~오전10시)와 불자기업 살리기 코너 등을 새롭게 마련하며 30분에서 50분으로 방송시간을 확대한 '날마다 좋은날'(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25분~11시15분) 등은 편성시간과 함께 내용도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불교TV의 본방송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15개에서 19



일 오전10시25분~11시15분) 등은 편성시간과 함께 내용도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불교TV의 본방송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15개에서 19개로 7% 늘어나 재방송 비율은 7% 감소해 70%가 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주부 신행담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나의 신앙 생활은 참으로 묘한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정말 기막힌 사연이라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게 어디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생각이 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 누구나 아픈 기억은 말하기 싫은 것이니까 말이다.

난 8년 동안 살을 부비고 사랑했던 딸 소희를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고 살고 있다. 9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잘되지 않아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다. 그러면서 딸 소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일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놓고 첫 전철을 타야만 했다. 사고 당일로 늘 그렇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준비를 하고 일하러 나갔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95년 4월20일 오후 4시 운명의 시간이 왔다.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었다. 그 때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열린 수화기를 들었다. 소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떠올리지 못한 채 내 마음은 벌써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멍하니 있는 나를 이윽게가 아저씨가 보다못해 열린 차를 태워주었다. 차에 실려 의정부까지 배달된 내 몸. 정신은 혼미하고 하늘은 깜깜



그림·문병성

중화상 입은 딸아이 입원소식에...

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의정부로 향하고 있는 동안에도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다 들렀지만 가망없다는 말만을 뒤로 한 채 쌍문동 한일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아이를 보았을 때 그건 벌써 우리 소희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의 85%가 2~3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만 조금 괜찮았을 뿐이었다. 아이의 고통에 한 울음소리. 나와 아이 아빠의 눈물. 말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 그대로였다. 정말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응급실에서 1차 치료를 끝내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오늘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왜 의료진들은 그렇게도 쌀쌀맞고 매정하지. 우리 소희는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음과 함께 고통스러워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을 참 잘했다는 것이다. 하루 하루가 그 어린 것에게는 눈물겨운 고통의 나날이었다. 소희는 살려야 의지도 굉장히 강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도 울지만 말고 무엇이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매달려 우리 소희를 내 품에서 빼앗기지 말자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생전 다니지도 않았던 조계사 앞에 가서 염주를 사들고 법당을 찾았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아이의 침대 옆에는 염주를 걸어두고 성심성의껏 기도를 했다.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은 다 해 보았다. 그리고 미친 여자처럼 핀지도 모르는 것들을 입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좀 지났을까. 내 살짜리 사내 아이가 소희 옆 침대로 똑같은 화상을 입고 입원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불지였는지 그날 저녁 무렵 스님 한분이 그 아이 병문안을 오셨다. 난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이은희(경기도 의정부시 효원동)

'통일염원' 거리 문화제 눈길

7개 청년단체 명동서... 80만원 모금도



◇청년정토회 회원 10여명이 12일 명동 거리에서 '굴뚝리고 있는 북한어린이'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지난 12일 흰색 옷을 입은 청년들이 명동거리 한복관에서 주관 하는 '통일'의 몸짓을 보내고, 그들을 둘러싼 행인들에게 '통일'의 염원을 전해주는 청년문화제를 열었다.

와 통일운동의 실천과 연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의 비참한 식량난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동풍물이 공연됐다. 또 북한의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음악회, 시낭송회, 사진전이 열렸고 거리 모금도 전개됐다. 이번 모금에서 총 80여만원이 모금됐다.

청년정토회 박남규회장은 "미사

일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청년불자들이 앞장서 매주 토요일 통일 염원을 알리는 공연과 거리 모금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9월중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각국의 청년단체들과 연대,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중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단신

청소년 인성개발 강연 청교련 논산지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지회(회장 선공스님·석림사주지)는 '청소년 인성개발'을 주제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순회 강연회를 마련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강연은 김형태교수(한남대 교육학과)와 강복한교수(공주교대 교육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논산을 비롯해 연기(19일)·홍성(26일)·당진(10월17일)·금산군(10월31일) 등에서 개최된다. (0461)736-9003

대구 청소년 포교지 '무지개 걸린...' 창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포교지 '무지개 걸린 나무'가 창간됐다. '부처님 닮으려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지거스님·통화사 포교국장)'에서 펴낸 '무지개...'는 대구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지개...' 창간호에는 대구의 명소나 유명인사들을 소개하는 '보현이의 대구 나들이' '10대들의 풍년지' 등이 실려 있으며 2천부 발간됐다. 32원 크기 16쪽 분량. (053)255-4873

건강 365일 <33> 대환

옛날 중국에 황씨(黃氏) 성을 가진 의원이 있었다. 그는 황련, 황기, 황정, 황금, 대환 등 다섯 가지 약재를 사용해 대부분의 병을 치료한다 하여 사람들은 오황선생이라 불렀다.

오황선생은 마준이란 제자를 하나 두었는데, 마준은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 의술을 한가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황선생이 출타해 집을 비운사이 허약한 임산부가 찾아왔다. 설사를 자주 한다며 처방을 해달라고 했다. 오황선생이 없자 마준은 평소 애 주었던 대환을 넣어 약을 조제해 주었다.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는 며칠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죽은 환자의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에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했다.

귀가길에 이 소식을 듣고 관가로 달려온 오황선생은 사또에게 간장열로 생기는 태음인 변비 치료 월경이상·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



<영재한의원 원장>

무릎을 꿇고 마준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대환은 변비에 좋은 약인데 자신의 제자가 잘못 알고 처방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의술을 잘못 가르친 자신을 벌해 달라고 말했다. 제자를 대신해 사또하는 스승의 모습에 감복한 사또에게 전수했다.

마준에게 화근이 되었던 이 대환은 변비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한의학에선 잘 알려져 있다. 태음인 체질중에 간에 열이 있으면 변비가 생긴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쾌감이 느껴진다. 또 대변 출기가 가늘면서 시원치가 않다. 입에서 냄새가 나며 헛구역질을 자주 하게 된다. 젊은 여자들한테 열이 많으면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일찍 끊어지고 얼굴이 자주 화끈거린다. 또 나이가 들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며 40세 이전에 월경이 없어진다.

태음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간에 열이 많아 위에서 열거한 증상이 나타날 때 대환은 성약(聖藥)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환 4g, 감초 4g을 달여 복용하며 변비가 심할 땐 대환 8g~10g, 감초 4g을 복용한다. (02)762-5510

성악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감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비밀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승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백암록>은 중문재일사라 불리며 선사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백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사의 백미이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과와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소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소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스로 넘치는 무희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읽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옮김 / 장원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위선의 법제자로 미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탄원을 만나 해동국사의 원상법안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번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선에게 머뭇머뭇 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승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암종(威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소 라즈니쉬 강의 / 김희정 옮김 / 값 6,500원